

섬유 리소스 센터

- 특별강좌 · 연수 포함한 3개 코스로 인재 육성

오사카 섬유 리소스 센터(resource center ; 資源供給센터)는 ‘패션 텍스타일’, ‘인테리어 생활용품’, ‘텍스타일 코디네이터’의 3개 코스를 ‘2007년도 섬유인 재육성연수사업(纖維人材育成研修事業)’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은 5년째이다. 2006년부터 추가된 ‘텍스타일 코디네이터 육성 코스’를 포함하여, 2006년도와 동일하게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물건만들기’를 중요시하는 자세를 계속 지키면서 2007년도에는 마켓조사 등, 판매에 관한 강좌를 충실화한 것이 특징이 되겠다.

3개 코스에서 특별강좌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패션 텍스타일, 인테리어 생활용품의 두 코스에서는 특별연수를 실시하며, ‘물건만들기’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매전략을 향상시킬 것이다. 물건만들기 연구, 물건만들기 실천, 판매전략 연구를 거쳐, 2008년 2월에는 연수의 성과를 발표하는 전시구평회(展示求評會)를 도쿄에서 개최한다.

또한 어패럴의 기획이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텍스타일 코디네이터’ 육성코스에서는, 새로 텍스타일 및 어패럴의 원가계산을 강좌에 넣었다. 연수의 토털 코디네이터는 일본 텍스타일 디자인 협회 부이사장인 데라이 요스케(寺井 洋介)씨가 맡고 있다.♣